



- ▷ 보도일: 2012.9.15(토) ▷자료 배포 <http://tongil.snu.ac.kr>
▷ 문의: 02) 880-4052~4, tongil@snu.ac.kr
▷ 연구 책임: 박명규 원장 ▷자료 문의: 송영훈 선임연구원(yhsong@snu.ac.kr)
※ 상세 자료 및 그림은 문서 하단에 첨부
-

2012년 한국인의 역사인식
- 5.16, 10월유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

1. 2012년도 「통일의식조사」 개요

- 최근 과거역사,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사건과 연관된 역사인식의 문제가 사회정치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의식조사를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해오고 있는 바, 최근 2012년도 조사자료에서 과거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및 의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 이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7-8월 경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총 1,200명을 다단계 무작위 추출하여 총 80여 문항을 일대일로 면접하여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매년 [통일의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2년 자료는 지난 7월 5~31일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 종합적인 분석결과는 이번 9월 26일 10:00~16: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목련홀)에서 학술심포지움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 여기 제공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5.16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10월 유신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

답유형의 분석이다.

- 실제 응답에는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 구별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긍정적’ / ‘부정적’이라는 두 응답범주로 크게 나누어 검토하였다.

2. 2012년도 조사자료에 나타난 역사인식의 특징

- 박정희 전 대통령 호감도,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 10월유신에 대한 지난 5년간의 평균응답 (각 83%, 51%, 35%) 에 비해 2012년 이들 사건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78.3%가 긍정적으로, 15.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5.16에 대해서는 43.1%가 긍정적으로 3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10월유신에 대해서는 26.5%가 긍정적으로 51.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5.16에 대한 평가, 10월유신에 대한 평가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 즉 긍정적 평가가 각각 78.3%, 43.1%, 26.5%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가 크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와 동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012년도 응답을 지난 5년간 (2007-2011)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이들 3항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작년과 올해의 응답유형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2012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3. 지난 5년 (2007-2011)의 자료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 지난 5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 5.16, 10월유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은 각각 83%, 51%, 35% 의 비율로 거의 변

함없는 패턴을 보인다.

- 다시 말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5.16에 대해서는 반반,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는 이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역사감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2012년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은 78.3% 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호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전 5년간의 반응에 비해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특히 “매우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0% 수준에서 24% 수준으로 낮아졌고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1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 특히 5.16에 대한 평가,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가 올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 이 두 사건에 대해 지난 5년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각각 51%, 35% 수준이었는데 비해 올해는 긍정적 응답이 각기 43.1%, 26.5%로 나타난다. 현 정부 출범초기인 2008년도에 5.16과 10월 유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각기 53%와 39%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2년에는 이들 두 사건에 대한 평가가 각각 10% 포인트 이상 낮아진 셈이다.

※ 참고로 다른 사건들, 예컨대 4.19,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에 대한 응답에서는 지난 5년간의 추이와 크게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 시대와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인식에서만 비교적 유의미한 변화가 2012년에 나타난 큰 이유의 하나가 아마도 박근혜 대표의 대선후보등장이라는 변수가 과거역사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온 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세대별 특징

-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성세대의 역사인식 = 보수적’이라는 전통적인 상식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50대이상의 장년층에서 5.16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011년에 23.2%였는데 올해는 36.5%로 크게 늘었다. 10월유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경향은 나타나는데, 10월유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50대이상 장년층의 비율은 2011년에 41.2%였고 올해는 56.7%로 나타난다. 40대의 10월유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비율도 2011년의 44.6%에서 올해는 53.7%로 증가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약 6%가 감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은 약 5%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 20대의 경우는 작년과 올해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늘어나고 잘 모른다는 응답이 다소 줄었다.
 - 20대는 5.16, 10월 유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호감도는 2011년 66.3%에서 올해 65.1%로,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작년 40.7%에서 올해 40.4%로, 10월 유신의 긍정적 평가는 작년 27.5%에서 올해도 27.5%로 나타나, 40대나 50대에 비해 낮지만, 지난 5년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 ※ 참고로 20대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11년 19.0%에서 올해 23.9%로, 5.16은 30.2%에서 38.0%로, 10월 유신은 34.5%에서 45.1%로 증가하였다.

5. 지역별 특징

- 우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장 큰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니는 수도권외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었다.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2011년의 81.2%에서 올해 76.6%로,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8.4%에서 45.6%로,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3.1%에서 27.1%로 줄었다.
- 특히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급증하였다.
 - 충청권에서 5.16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비율이 지난 5년간 줄곧 50%를 넘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31.9%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대신 부정적인 평가가 20%대에서 올해 39.7%로 급증했다. 10월유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중부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30%후반대를 유지하였으나 올해는 17.2%로 떨어졌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이전의 40%대에서 올해 50.1%로 높아졌다.
 - 호남권의 변화도 유사하게 나타나 5.16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011년의 30%대에서 올해는 58.3%로 높아졌다.
- 영남권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뚜렷한 지역이지만 이들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과거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다.
 - 5.16에 대한 영남권의 긍정적인 평가는 2011년 57.4%에서 올해 48.1%로 낮아졌고 대신 부정적인 평가는 29.7%에서 36.2%로 높아졌다. 10월유신에 대한 영남권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비율은 2011년 35.8%에서 올해 29.2%로 낮아졌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비율은 작년의 48.7%에서 올해 55.1%로 높아졌다.
- 이런 경향은 역사평가의 태도에서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있지만 최근 꼭 같이 부정적인 응답이 커지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 여전히 영남지역이 호남지역에 비해 이들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지난 5년간의 추이에서는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6. 정치성향별 특징

-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진보층의 역사인식 추이를 보면,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2011년의 77.3%에서 67.1%로 낮아졌고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6.41%에서 36.3%로,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5%에서 25%로 낮아졌다.

-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보수적이라 답한 보수층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5.16과 10월 유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낮아지고 있다.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1년의 88.3%에서 올해는 90.7%로 오히려 높아졌다. 하지만 5.16과 10월유신에 대한 역사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즉 5.16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층의 비율이 2011년의 55.2%에서 올해는 48.4%로 낮아졌고 10월유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층의 비율도 2011년의 36.9%에서 28.8%로 낮아졌다.

- 스스로의 정치의식을 중도라고 응답한 중도층에서도 지난 5년에 비해 올해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 즉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2011년의 82%에서 올해는 78.5%로, 5.16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0.3%에서 44.3%로,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6.2%에서 26.1%로 낮아졌다.
 - 특히 10월유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매우 낮아 진보층과 별 다르지 않다. 중도층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역사인식 변화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인의 의식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일 수 있다.

※ 2012년 한국인의 역사인식 조사 결과 및 그림

※ 5.16,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림: 5.16,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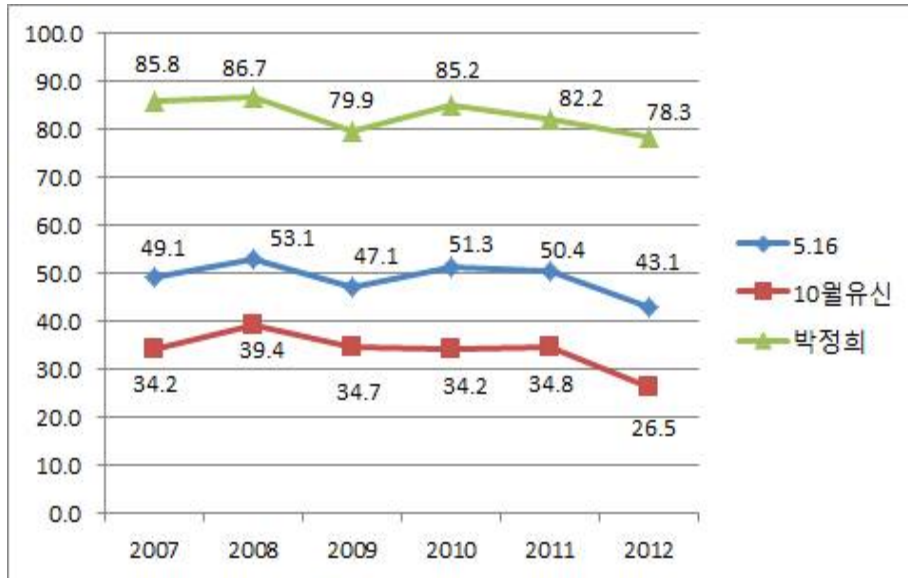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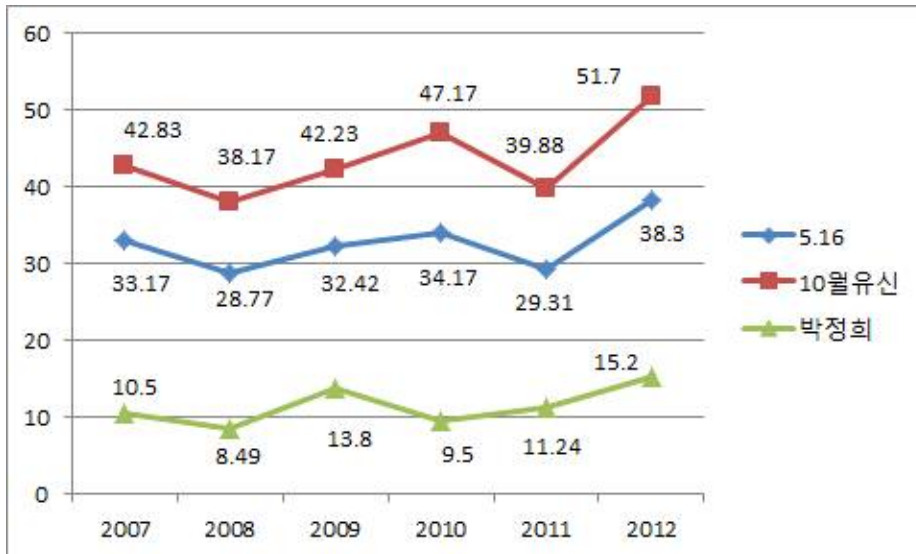


그림: 5.16,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



※ 5.16에 대한 역사인식

연령대별 인식 변화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20대	40.4	42.4	36.0	39.6	40.7	40.4
	30대	47.7	52.3	47.9	46.8	42.3	37.2
	40대	55.1	57.2	53.5	54.1	53.8	45.3
	50대이상	53.4	58.9	51.4	65.7	61.5	47.8
대체로 부정적	20대	33.8	31.97	33.7	36.0	30.2	38.0
	30대	34.1	26.49	29.7	36.2	32.0	41.1
	40대	33.4	31.61	36.4	34.8	32.9	38.1
	50대이상	31.2	24.83	29.8	29.3	23.2	36.5
잘 모름	20대	25.8	25.65	30.4	24.4	29.1	21.6
	30대	18.2	21.19	22.4	17.0	25.8	21.6
	40대	11.5	11.21	10.2	11.2	13.4	16.6
	50대이상	15.4	16.33	18.8	5.0	15.4	15.7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변화

	정치적 성향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진보	48.2	51.9	46.15	53.77	46.41	36.3
	중도	45.6	55.6	46.64	48.8	50.26	44.3
	보수	56.3	49.9	48.92	52.49	55.17	48.4
대체로 부정적	진보	38.9	35.0	38.46	34.42	37.13	49.7
	중도	34.0	24.0	31.15	32.72	25.82	36.4
	보수	26.3	31.7	29.1	36.78	27.24	29.2
잘 모름	진보	12.9	13.2	15.38	11.81	16.47	14.0
	중도	20.4	20.4	22.2	18.48	23.92	19.3
	보수	17.4	18.5	21.98	10.73	17.59	22.4

지역에 따른 인식 변화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수도권	47.0	55.3	50.4	50.9	48.4	45.6
	중부권	50.9	50.8	52.5	58.5	53.0	31.9
	호남권	39.5	50.0	37.8	54.6	40.5	31.3
	영남권	57.9	50.9	43.8	49.7	57.4	48.1
	강원	41.7	63.9	44.4	52.8	48.6	36.1
	제주	15.4	35.7	23.1	7.7	46.2	30.8
부정적	수도권	33.3	27.0	31.2	35.8	30.3	35.4
	중부권	32.2	32.0	28.0	22.0	23.9	39.7
	호남권	41.2	30.8	35.3	32.8	30.2	58.3
	영남권	27.6	30.6	34.3	36.4	29.7	36.2
	강원	47.2	25.0	33.3	25.0	20.0	36.1
	제주	61.5	21.4	53.9	53.9	38.5	46.2
잘모름	수도권	19.6	17.7	18.4	13.4	21.3	19.1
	중부권	17.0	17.2	19.5	19.5	23.1	28.4
	호남권	19.3	19.2	26.9	12.6	29.3	10.4
	영남권	14.6	18.5	21.9	13.9	12.9	15.7
	강원	11.1	11.1	22.2	22.2	31.4	27.8
	제주	23.1	42.9	23.1	38.5	15.4	23.1

※ 10월유신에 대한 역사인식

연령대별 인식변화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20대	27.2	31.6	27.7	28.4	27.5	27.5
	30대	36.0	41.1	38.7	30.5	31.3	25.5
	40대	40.0	41.7	35.4	37.1	39.4	28.7
	50대	33.3	42.2	37.2	41.4	39.1	24.4
부정적	20대	36.8	37.2	36.3	41.6	34.5	45.1
	30대	43.6	33.1	39.9	47.8	38.1	49.3
	40대	46.6	42.2	49.2	50.2	44.6	53.7
	50대	44.4	39.5	43.6	49.3	41.2	56.7
잘모름	20대	36.1	31.2	36.0	30.0	38.0	27.5
	30대	20.4	25.8	21.4	21.8	30.6	25.2
	40대	13.4	16.1	15.4	12.8	16.0	17.6
	50대	22.2	18.4	19.2	9.3	19.7	18.8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변화

	정치적 성향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진보	38.9	39.1	33.4	32.9	30.5	25.0
	중도	30.5	42.7	36.3	34.2	36.2	26.1
	보수	35.8	34.0	33.1	36.0	36.9	28.8
부정적	진보	43.9	45.0	49.2	49.5	50.3	58.5
	중도	42.6	32.4	39.2	44.2	33.5	50.3
	보수	42.5	42.2	41.2	49.8	40.7	47.0
잘모름	진보	17.2	15.9	17.4	17.6	19.2	16.5
	중도	26.9	24.9	24.4	21.6	30.3	23.7
	보수	21.7	23.8	25.7	14.2	22.4	24.2

지역별 유신에 대한 평가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수도권	32.2	46.3	34.7	30.9	33.1	27.1
	충부권	33.1	30.5	37.3	38.1	40.2	17.2
	호남권	36.1	35.4	31.1	50.4	35.3	27.0
	영남권	40.6	34.2	35.8	33.6	35.8	29.2
	강원	16.7	30.6	36.1	36.1	37.1	25.0
	제주	7.7	21.4	15.4	7.7	30.8	7.7
부정적	수도권	43.5	32.5	44.5	51.7	38.7	49.3
	충부권	44.9	49.2	40.7	39.0	34.2	50.0
	호남권	43.7	40.8	37.8	29.4	32.8	59.1
	영남권	39.6	42.7	40.4	49.1	48.7	55.1
	강원	41.7	36.1	36.1	38.9	22.9	44.4
	제주	69.2	42.9	53.9	53.9	46.2	53.8
잘모름	수도권	24.4	21.2	20.7	17.5	28.2	23.5
	충부권	22.0	20.3	22.0	22.9	25.6	32.8
	호남권	20.2	23.9	31.1	20.2	31.9	13.9
	영남권	19.8	23.0	23.8	17.3	15.5	15.7
	강원	41.7	33.3	27.8	25.0	40.0	30.6
	제주	23.1	35.7	30.8	38.5	23.1	38.5

※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역사인식

연령대별 인식변화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20대	74.8	68.8	62.1	72.0	66.3	65.1
	30대	85.4	88.1	81.8	81.7	78.7	71.6
	40대	90.8	92.5	85.9	92.1	86.6	85.3
	50대	92.5	94.6	90.4	95.7	93.0	86.8
부정적	20대	17.2	15.6	24.8	16.2	19.0	23.9
	30대	10.8	9.6	11.5	11.2	10.7	18.1
	40대	7.2	6.0	11.2	6.6	11.4	12.1
	50대	6.5	3.7	7.5	3.6	5.8	9.3
잘모름	20대	8.0	15.6	13.2	11.9	14.7	11.0
	30대	3.8	2.3	6.7	7.1	10.7	10.3
	40대	2.0	1.4	3.0	1.3	2.0	2.6
	50대	1.1	1.7	2.1	0.7	1.2	3.9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변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진보	81.5	80.3	73.9	80.2	77.3	67.1
	중도	87.0	86.8	78.8	86.5	82.0	78.5
	보수	87.5	91.8	87.3	90.0	88.3	90.7
부정적	진보	16.8	15.9	21.1	13.8	19.2	27.7
	중도	9.0	7.2	13.4	7.8	8.2	13.0
	보수	7.3	4.4	7.7	6.5	8.3	5.0
잘모름	진보	1.7	3.8	5.0	6.0	3.6	5.2
	중도	4.1	6.0	7.8	5.7	9.9	8.5
	보수	5.2	3.8	5.0	3.5	3.5	4.3

지역에 따른 인식변화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긍정적	수도권	84.3	84.5	78.3	84.6	81.2	76.6
	중부권	89.0	95.3	85.6	83.9	72.7	82.0
	호남권	80.7	82.3	68.9	82.4	70.7	56.5
	영남권	89.8	89.1	84.0	87.4	91.0	89.4
	강원	91.7	86.1	91.7	88.9	88.6	61.1
	제주	53.9	78.6	69.2	84.6	92.3	84.6
부정적	수도권	11.7	9.0	16.4	10.5	12.3	15.1
	중부권	8.5	1.6	9.3	11.9	17.1	10.3
	호남권	17.7	14.6	24.4	13.5	18.1	40.0
	영남권	6.5	7.6	7.1	5.9	5.8	6.7
	강원	5.6	11.1	5.6	5.6	2.9	25.0
	제주	23.1	7.1	30.8	7.7	0.0	15.4
잘모름	수도권	4.1	6.4	5.4	4.9	6.6	8.2
	중부권	2.5	3.1	5.1	4.2	10.3	6.9
	호남권	1.7	3.1	6.7	4.2	11.2	3.5
	영남권	3.7	3.3	9.0	6.8	3.2	3.8
	강원	2.8	2.8	2.8	5.6	8.6	13.9
	제주	23.1	14.3	0.0	7.7	7.7	0.0

※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한 평가

그림: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한 평가 (%)

